한라시론

김 장 환
전 광저우총영사·한국외교협회이사

사회적 약자의 자연향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정상인과는 달리 인지적 기능 취약 또는 거동불편으로 마땅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6·25 동란으로 불구가 된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과거에는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그려져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시설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과 시설이 대부분 설치돼 있다.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도 많이 늘어났고, 다양하다. 또한 해외 봉사활동도 중단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옛날과는 격세지감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봉사활동이 중단돼왔지만, 큰 흐름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이어나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경험했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는 노약자가 된다는 점에서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바로 자신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지원은 과거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그들도 정상인이 향유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간과해온 것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해외여행에서 우리 대부분은 세계 각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즐기며 행복한 경험도 하게 된다.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명승고적, 유럽의 알프스를 포함해 많은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넋을 잃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도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을 이용해 자연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까운 홍콩만 해도 아름다운 해안과 도서를 볼 수 있는 해양공원 케이블카에 이어, 홍콩국제공항 몽핑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연결돼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도 아름다운 경관관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의 황산이나 장가계천문산 케이블카는 여러 방향으로 이어지거나, 시내에서 산 정상까지 연결돼 주차 및 자연보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 설치 관련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백지화된 사례가 있어왔다.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배려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언젠가 다시 다뤄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제주도에 여러 개의 최신 케이블카가 한라산과 바다경관을 중심으로 들어설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 그로 인한 관광산업 효과도 엄청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종사자들이 유럽과 같이 자연보호와 케이블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설

내달 정상 등교수업, 준비에 빈틈 없어야

도내 모든 학교가 내달 새학기 등교수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 연기를 거듭해 온 학사일정과 달리 올해엔 연기없이 3월 2일부터 입학식과 등교수업 등의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교육당국 방침이 정해진 만큼 개학까지 2주동안 '교육가족'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한 일상생활 등이 무척 중요해졌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입학식과 등교수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새학년 준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입학식과 등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입학식은 신입생 규모별로 참석자수를 조정하고, 등교수업은 학생수와 학교별로 차등을 둬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등교 이후 '방역·안전'을 도모토록 했다. 특히 개학전 2주동안 교육가족들의 코로나19 '안전'에 더욱 중점을 뒀다. 우선 개학전까지 전 기관 모든 직원과 교직원들의 타 시도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보건교사도 171개교에 137명을 확대 배치, 철저한 방역과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 정상 등교수업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하다면 '교육가족'을 향한 더 높은 강도의 '금지 조치'나 인력대책도 검토돼야 한다. 만에 하나 한, 두 사람의 확진자라도 발생시 막대한 일정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더욱이 현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상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을 제외시킨데다 집단면역 형성시기도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일정기간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비상'하게 대응하는게 맞다는 얘기다. '교육가족' 모두 아이들의 차질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안전'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 입맛대로 감염병 전문병원 만드나

제주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독립적인 감염병 병동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권역내 환자 배정과 전원 업무도 맡는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면 국비를 지원받아 음압격리병동(일반 병상 30개, 중환자 병상 6개)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을 뒤집으면서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2016년 용역을 통해 제주를 비롯 인천, 중앙·중부,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7년 호남에 이어 지난해에는 중부와 영남 등 모두 3개 권역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제주와 인천 두개 권역만 남은 셈이다. 올해 예산은 권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1곳 설립에 필요한 설계비(23억원)만 반영해 두 지역간 경쟁이 예상됐다.

그런데 제주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질병청이 올해 네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와 인천 이외에 강원과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경북과 대구를 망라한 대구·경북 권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주와 인천이 벌이던 경쟁에서 더 치열해진 것이다. 특히 2개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선정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비단 제주만이 아니라 인천도 마찬가지 신세다. 용역을 거쳐 추진한 정부 계획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 적어도 제주와 인천은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너의 장미꽃

강 다 혜
정치부 기자
dhkang@ihalla.com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생택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 나라의 어린이, 돋아나는 새싹, 꼬물거리는 아기 강아지, 입 벌리는 아기새. 이 험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고 연약한 것들은 그렇게 갖은 정성으로 자라나 비로소 어른이 된다.

근간에 아동학대가 화두다. 기사 머리엔 "얘는 이렇게 애를 때렸고, 걔는 저렇게 애를 쥐어 팼다더라"는 게 요리 레시피보다도 더 자세하게 열거된다. 가해, 방관, 희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기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다.

한참을 올려다 봐야 하는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눈에 아주 큰 사람이다.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 그게 인간이지. 하지만 성인과 아이는 완력을 두고 보면 강자와 약자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은 한쪽에겐 봉변이다.

작은 생명들이 부모를 쳐다보는 얼굴에선 '정말 나에겐 너밖에 없어'라는 메시지가 읽힌다. 먹고 입고 씻는, 나의 모든 두 손 두 발을 부모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살면서 완력에 당한 경험이 몇 번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처절한 무력감이 스치는 굴욕적인 그러한 경험을, 나의 두 손 두 발을 도맡은 이에게 당했을 때 작은 생명이 느꼈을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묵직하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시야 밖에서 매맞고 있을 지 모르겠다.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비로소 어른들이 아동의 안전에 관심을 돌린다는 슬픈 뜻일 터다. 불편하다고 고개를 돌리면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어린왕자'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뉴스-in

직접 장을 보고 식재료 전달한 부지사

거동 힘든 노인들 집 방문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7일 직접 장을 본 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집을 찾아 식재료를 전달하는 봉사에 나서 눈길.

고 부지사는 이날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회원, 중앙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장을 본 뒤 제주시 일도1동 인근에 홀로 사는 노인 가정 4곳을 방문해 식재료 등을 전달.

고 부지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끼니 걱정을 안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 이상민기자

도의원 대상 성인권교육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 연설 중 도의원의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회가 17일부터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 등을 실시.

이번 교육은 도의회의 의뢰로 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6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총 5회 예정.

도의원의 혐오 발언을 비판해온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면피를 위한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도의회의 정례교육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 오은지기자

"공직자들 긴장 늦춰선 안돼"

○…안동우 제주시장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관련 공직자들이 방역지침 준수 등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

안 시장은 17일 오전 주간 간부회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독감(AI)방역 등 현안을 점검하며 "거리두기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직자들은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언급.

이어 2주간의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 이윤형기자

부 고

정신호(대신전기·대신수산 대표), 진호((주)건축사사무소대신 대표) 어머니 **제주양씨 순화(향년 85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7일 11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2월 19일(금요일)
▶발인일시 : 2021년 2월 20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층 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정신호 / 며느리 장순희
진호 / 고인희
딸 정경미
은미 / 사 위 이철승
손 자 정찬수 / 손 녀 정애리
범수 / 유리
유진

※ 연락처 : 정신호 010-3696-0527
정진호 010-3694-3080
장순희 010-4180-1527
고인희 010-3692-2926

부 고

노용삼 어머니 **청주한씨 태보(향년 100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7일 09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2월 18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1년 2월 19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하귀농협장례식장 3층 301호 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노용삼 / 며느리 강여숙
용하 / 김혜란
딸 노금선 / 사 위 정수운(故)
신화 / 좌남수
금화 / 이정의
순화 / 홍의창
손 자 오진수 / 외손자 좌민석
노동우 / 좌민우
노동진
노동범

※ 연락처 : 노신화 010-7157-8001
이정의 010-7423-39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해주최씨 순덕(향년 7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8일

남 편 강창하
아 들 강병선 / 며느리 김정미
행선 / 이영주
병준 / 백명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민형(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8일

부 인 양순화
아 들 이무성 / 며느리 오경은
병철 / 양여수
딸 이은주 / 사 위 최영현
경희 / 이대식
효정

해산 및 이의신청, 채권제출공고

당 협동조합은 2021년 01월 21일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21년 02월 01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협동조합의 해산에 이의가 있거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신청 및 채권액을 당 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8일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38, 2층(이도이동)
청산인 강 중 묵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